

<지난주 말씀&서론>

▶우리에게 오직 한가지가 붙잡혀야 합니다. 오직 한가지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그 한가지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말씀을 편집할 때 이 편집도 하나님께 인도하셨음을 느낍니다. 이 말씀이 그냥 왔다갔다하는 말씀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를 뿌리내리고 성장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키워가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악한 것을 선택하자 말고 선한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분별하면서 가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은 악한 것을 본받습니다. 선한 것을 본받는 것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만 맞나? 너만 복음이나?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게 나라는 틀에 잡혀 있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정말 나를 깨야 합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사탄의 틀, 운명을 깨야 합니다. 나를 깨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찌들어 있는 이 문화의 틀을 깨고 그리스도께로 가야 합니다. 나를 얹어내는 운명의 틀을 깨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성상위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일주일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악을 행하는 자리에 있었다 한지라도 정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것을 본받고 가야 하겠다. 선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뵈지 못한 그 자체가 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증인을 봤습니다. 악의 대표적인 증인이 디오드레베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리와 자기 이름과 자기 자신이 최고였던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대로 교회가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악의 증인이었습니다.

▶선의 증인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이 인정하고 주변인들이 인정하는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종과 함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았던 사람입니다.

▶유다서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의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얹어걸린 자, 여러분이 이런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결론적으로 어떤 발판이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에도 고떡없는 나의 발판이 무엇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에 속한 자의 기도를 하라는 말이지요. 거룩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에 속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망대의 기도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날마다 3집중 속에서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오늘 하루 성령의 인도받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본론>

1.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유1:1)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킴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의 편지로 말씀을 받았는데, 유다서도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달하는 사도는 다른데, 놀랍게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은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더 굳건히 뿌리를 내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흐름입니다.

▶공화와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유1:2)

공화와 평강과 사랑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넘치길 축원합니다. 이 사랑 속에 있는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유1:3)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적이 있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적이 뭘 못하게 무너뜨려요? 예배하지 못하도록, 서로 원네스하지 못하도록, 나를 공격합니다. 나라는 것을 딱 건드려 버리면 네가 뭘데? 네가 뭘데 너는 되고 나는 안되냐?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 이런 걸로 문제가 되어서 안됩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신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합니다. 힘써 영적 싸움을 하라. 복음을 무너뜨리거나 교회의 원네스를 망치는 사람이 있다면 영적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을 붙잡고 역사하는 흑암을 놓고 영적 싸움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님인 주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유1:4)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단, 사이비, 다른 영을 받은 자, 원네스를 깨고 말씀의 흐름을 깨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흐름을 깨는 자, 나를 주장하고 자기 소리를 내고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자, 말 그대로 디오드레베처럼,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예견하면서 싸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깨는 자, 이런 자들을 놓고 가만히 있지 말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답이 안나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소리

를 하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약해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것을 가장하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 소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유1:5)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해결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유1:6)

하나님께서 지금 흑암을 가두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이비 이단 적그리스도가 날뛰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묶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가 사탄입니다. 그 존재가 그들의 배후 조종자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유1:7)

소돔과 고모라가 증거입니다. 이 말은 소돔과 고모라가 사람이 싸워서 해결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 흑암과 음란을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날뛰어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 업신여기며 비방하는 적그리스도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유1:8)

적그리스도가 권위를 업신여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와 직분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분리시키십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유1:9)

천사장 미가엘도 못하는 일을 교회에 몰래 들어온 적그리스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탄이 교묘하게 나라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충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은혜 속에 들어가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니까 피곤하지가 않아요. 밤을 새고 운전을 하는데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학생들의 상태가 보여요. 그걸 말해주니까 어떻게 알았냐고 해요. 이게 뭐일까 할 정도로. 우리는 누리셔야 합니다. 행복하셔야 해요. 지난주에 저는 어느정도 안 행복했느냐, 예배를 안하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내 감정이 상하니까 예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구나, 이런 상태를 가지고도 나는 예배한다.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놀라운

피의 비밀이 있다면 나는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니 놀랍게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제 사역이 전부 말씀 성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한번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유1:10)

이 사람들은 이성없는 짐승같이 비방을 합니다. 적그리스도들은 교회 안에서 짐승같은 짓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선을 본받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원네스를 무너뜨리는 흑암의 장난입니다. 이들은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이걸 합니다. 중직자들은 이걸 보고 영적싸움을 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샅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리진 길로 몰려 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유1:11)

복음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발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길에 섰던 거짓 선지자입니다. 고라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뽐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유1:12-13)

암초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 비빔밥을 맛있게 먹는데 다른 돌을 씹은 것입니다. 기탄없이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지만 너희의 애찬에 암초와 같다는 것입니다.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수치의 거품을 뽐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입니다. 그래서 딴 짓을 하더라도 복음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짓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있는데 나가서 비방한 사람은 어떡하십니까? 정말 복음 속에 들어왔다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까? 왜 나는 죽었는데? 내 판단과 기준으로 함부로 말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담의 칠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라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유1:14-15)

아담의 칠대 손 에녹의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게 행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유1:16)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구입니까? 전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과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각인, 뿌리, 체질이 나오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3.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유1:17)

말씀을 기억해라.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유1:18)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난리를 치는 것은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말한 것입니다. 그 말대로, 예언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이 많아요. 또 하나님이 정리하실 것입니다. 또 자리를 뺏기면 이 전도운동을 안할 사람이 많아요.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지 사도들이 이미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유1:19)

성령이 없다? 불신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데 성령이 없는 불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이야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유1:20)

정말 우리교회 모든 중직자들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듣는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 위에 뿌리내리는 우리교회 중직자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활을 기다리라(유1:21)

이게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입니다. 복음 가지고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고 나라가 임했을 때 세계복음화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공활히 여기라(유1:22)

의심하는 자가 있다면 공활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게 이거다, 이게 이거다, 말하고 다니니까 의심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공활히 여기고 적그리스도에 망하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공활히 여기라(유1:23)

적그리스도는 육체도 더럽고 그들이 걸친 옷까지 더럽혀져 미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움으로 공활히 여기라는 것은 그들을 어떻게 살릴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도 인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살려야지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님인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유1:24-25)

유다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237 나라 5000종족을 위해서 살길 원하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유다서의 마무리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 되길 바랍니다.

《결론》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발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발판이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발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발판은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발판은 하나님의 방법,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발판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요, 보증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보증서가 있습니다. 이 보증을 붙잡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섯 번째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선교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하나님의 설리입니다. 우리는 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아홉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하나님의 상급이 전도자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발판 위에서 자신을 세워라, 이걸 보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라고 합니다. 이 기도를 다시 이번주부터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빛교회

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임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

E - mail : dhkwak0224@hanmail.net

인생복음상담 : 070-4406-4079